

문화

불심이 음악을 만나면 포교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찬불가 보급하는 LMB싱어즈

2월 1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인현동에 위치한 LMB싱어즈 연습실을 찾았다. 저녁 연습이 한창인 LMB싱어즈 단원들 표정은 모두가 밝았다. 음성 포교의 선두주자로 찬불가 보급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기에 모두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면 많이 어렵죠. 불교가 좋고 음악이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예술 활동이다 보니 단체를 유지하고 이끄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15년 동안 고비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생각합니다. 찬불가를 통한 포교죠. 그래서 노래로 포교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LMB싱어즈 단원들이 2월 11일 관악구 인현동 연습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1999년 설립 15년 음성포교

찬불가 창작 및 보급에 매진

월 2회 군법당 포교도

원문화사, 2011 통영 국제음악제 프린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2004년, 2007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창립 초창기부터 이어오고 있는 군법당 공연은 LMB싱어즈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활동 중 하나다. 현재 단원들이 주최하는 군법당 공연은 물론, LMB싱어즈의 비전공자 혼성합창단 우뻏가합창단(2003년 창단)의 공연까지 월 2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1집부터 마음을 주제로 늘 꾸준히 음반을 내왔다.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꾸준히 음악을 하면서 수행으로 이르는 길을 음악에 담아냈다”고 설명한다.

LMB싱어즈는 그동안 찬불포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음악회와 산사음악회는 물론 군법당, 교도소, 병원, 고아원 등을 돌며 650여회의 공연을 펼쳐왔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교계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LMB싱어즈는 2009년 행

들이 더 친근하니 군인들이 불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이렇게 인연이 된 군인 중 한명은 저희가 보내준 불서를 읽고 출가를 한 분도 있어요.”

음악협회 역시 LMB싱어즈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법회 중 하나다. 찬불가 위주의 의식곡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간단한 공연이 곁들여지며 지도법사인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의 법문까지 더해져 음악법회의 꽃을 피운다.

앞으로 LMB싱어즈는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로 대중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회심곡을 성악으로 시도하는 작업, 찬불 뮤지컬 제작 등은 물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찬불가를 정리하는 작업도 해보고 싶다고. “같은 찬불가인데도 단체마다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불심과 음악을 바탕으로 찬불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LMB싱어즈는 오늘도 연습을 연습을 거듭하며 불심의 향연을 꽃피우고 있었다. (02)882-1727

정혜숙 기자 bwjsh@ryunbul.com



2013년 12월 양재 매한 기념관에서 펼쳐진 4집음반 출시 기념음악회.



LMB싱어즈의 비전공자 합창단 우뻏가합창단 연습 장면.

좋은 절&스님과 시인의 문화공간

천만편의 시를 낳은 절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봉은사는 고려 때의 견성사(見性寺)에서 그 연혁을 시작하지만, 조선 중기부터 면모가 새로워졌다. 1498년(연산군4) 정현왕후가 성종(成宗)의 능인 선릉의 원찰로 견성사를 중창하고 이름도 봉은사로 고친 것이다. 1551년(명종 6)에 선교양종의 승과제도가 부활될 때 봉은사는 선종수사찰로 선종 승과교사를 시행하는 절이 되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바로 봉은사와 출신이다. 봉은사는 유정, 각성, 경림, 상현, 한영 스님 등으로 대를 이어오면서 쇠락과 중창을 거듭해 왔다. 강 건너에 위치한 봉은사는 시인묵객들에게 좋은 답사코스였다. 특히 조선 중기 풍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동호(東湖) 너머에서 들려오는 봉은사의 종소리(奉恩開鐘)는 ‘한양십경(漢陽十景)’ 중의 하나로 꼽혔다.

시를 통해 봉은사의 정취를 한껏 드높인 선비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리는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이달(李達 1539~1612) 백광훈(白光勳 1537~1583) 이 두르려진다. 옛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학문과 문학에 매진하며 조선의 새로운 시풍(詩風)을 서정적이고 묘사적인 시풍을 열었던 삼당시인은 한강과 봉은사의 풍경을 읊으며 스님들과 교유도 빈번했다. 1578년경에는 세 사람이 봉은사에 모여 함께 시를 지으며 즐기기도 했다.

선화경림(禪華敬林) 스님이 1637년(인조 15)에 봉은사를 중수했을 때 처능(處能 1617~1680) 스님이 ‘봉은사중수기’를 썼다. 처능 스님은 기문에서 “신인묵객들이 이곳에서 음영한 것이 천만 편을 능가한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삼당시인들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들을 밝히고 있다.

삼월광릉화만산(三月廣陵花滿山)
청강귀로백운간(淸江歸路白雲間)
주중배지봉은사(舟中背지봉은寺)
축백수성승엄관(蜀魄水成聲嚴關)

춘삼월 광릉에는 꽃이 산에 가득한데
맑은 강 따라가는 길은 구름 사이에 있어.
배에서 등을 돌려 봉은사를 가리키니
소객새 소리에 스님은 빗장을 내리네.
-최경창 ‘봉은사중수’ <고죽유고>

최경창은 전라도 영광출신으로 고려시대 최충(崔沖)의 18대손이다. 학문과 문장이 탁월했는데 이이(李瑀) 송익(宋翼) 최립(崔 立)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고 정철(鄭澈) 서익(徐益) 등과도 삼정동에서 교류했다. 성격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⑧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①



봉은사 종소리는 조선중기에 한양십경의 하나로 꼽혔다. 사진은 봉은사 범종각

소박하고 청렴해 청백리로도 이름났다.

삼당시인들은 봉은사의 스님들과도 매우 깊이 교류했는데, 그들이 봉은사를 드나들며 명편(名篇)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그러한 긴밀한 교류가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좋은 절과 스님 그리고 격조 높은 시인이 만나 멋스러운 문화 공간을 형성해 냈다고나 할까?

아무튼 위에 보인 칠언절구 역시 제목이 ‘봉은사중수(奉恩寺僧輔)’인데 봉은사 스님에게 써 준 것이다. 내용은 꽃이 화려한 봄날 봉은사를 찾아 갔다가 돌아가며 쓴 것으로 읽힌다. 좋은 시는 읽는 순간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 최경창의 이 칠언절구 역시 꽃이 가득한 춘삼월 봉은사를 찾아가 종일 놀던 선비가 배를 타고 구름 사이로 돌아가는 길에 등을 돌려 절을 보니 자기를 전송한 스님이 말없이 절문을 닫고 있다. 때마침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리니, 저무는 봉은사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광릉이라는 지명은 당시 봉은사가 경기도 광주에 속했고 선릉이 있어 그렇게 불린 것이다. 오늘날 봉은사가 있는 남양주 광릉과는 다른 의미다.

시로 완성되는 봉은사의 추억

이렇게 멋들어진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낸 최경창은 이어서 세 편을 더 읊어 봉은사에서 깊은 추억을 시로 완성했다.

又(또)
불탈가사아전계(不脫袈裟下殿階)
일성추경발운애(一聲秋鶯發雲崖)
유인거후문환엄(遊人去後門還掩)
적적장랑도석재(寂寂長廊到夕齋)

가사를 벗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며
구름 낀 언덕에서 가을소리 들려온다.
놀이꾼들 떠난 후에 문이 다시 닫히고

적절한 긴 회상에 저녁 불공 올리네.

又(또)
삼일강담체원주(三日江潭滯遠舟)
이릉풍우독귀수(二陵風雨獨歸愁)
금래상억불상견(今來相憶不相見)
추창미중하석루(秋鍾未中下石樓)

삼일동안 강 언덕에 머물며 배 저어지지
양 언덕에 비바람치고 혼자 근심스레 돌아온다.
요즘 서로 생각하며 만나지 못하여
슬퍼하며 들려오는 종소리에 석루를 내려온다.

又(또)
한야고목석양간(寒鴉古木夕陽間)
일경요요엄수관(一逕寥寥掩水關)
육향대회중기신(欲向梅花重寄信)
경주이과광릉산(輕舟已過廣陵山)

석양사이로 겨울까마귀 고목에 앉아 있고
한 줄기 작은 길 적요하여라.
매화를 향하여 소식 전하러니
빠른 배는 이미 광릉산을 지난다.

최경창의 시를 ‘청한(淸寒)’과 ‘한경(悍動)’을 키워드로 해석한다. 청한은 맑고 차가움이고 한경은 굳세고 강하다는 뜻이니, 매우 이성적인 시인의 성품이 시로 드러나고 있음을 주시하는 것이다. 평생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청백리로 공인된 최경창이고 보면 그의 단아한 삶과 시는 틀이 아니었다. ‘봉은사시축’의 4수도 넘치지 않고 잠기지도 않는 풍류를 고르고 있다. 경물(景物)의 객관성과 자신의 느낌을 혼동하지 않고, 불교도 성리학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봉은사 풍경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에스24/철도문고/
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
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가는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한 나쁜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blog.co.kr

값 15,000원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031-534-3373